

HEADLINE NEWS

계약 및 조달시스템 개혁 종합 보고서 발표 (뉴욕)

미국 뉴욕시는 그동안 연간 9억 달러에 달하는 시의 조달시스템 개혁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 행정제도 개선, 경영 관리 및 기술 혁신 방안 등을 연구해왔는데, 최근 그 연구결과를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6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조달 계획안과 조달업무 관계자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관리하는 방안, 기존의 비효율적인 조달업무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7개 분야별 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 개혁' 분야의 주요 내용은, 중복되는 조달정책과 감독기능 조정, 불필요한 감독 승인제도 폐지를 통해 조달과정시간 단축, 소규모 구매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안 모색, 소수인종과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지역기업·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상호협력과 정보교환 강화 등이다.

둘째, '혁신적인 구매기회 활용' 분야는,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다수의 판매자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최적의 가격에 구매하는 방안, 연방정부와 찰정부의 조달계약에 덧붙여 계약하는 'piggy-back' 방식의 계약 및 민관협력 계약 증가 등 조달금액을 절감하는 방안 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면에 계속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마을' 건설 (영국: 스완지시)

도시환경

- ② 「자동차 공회전 억제 홍보의 날」 시행 (오타와)

도시교통

- ③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The SaferRoads Project'추진 (뉴질랜드: 웰링턴시)
- ④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 범퍼에 음주운전 경고용 스티커 부착 (플로리다주: 에스캠비아 카운티)
- ⑤ 지하철 이용자에게 핸드폰 및 이메일로 실시간 교통정보 무료 제공 (런던)
- ⑥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공사 관련 의견 수렴 프로그램 시행 (테네시주: 내슈빌시)
- ⑦ 사고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견인차량업체에 보너스 지급 추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사회복지·문화

- ⑧ 대도시 여성 36% "아이가 일에 방해돼" (스웨덴 대도시)
- ⑨ 공공도서관을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런던)

행재정

- ⑩ 시의 경제발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용업 창업 워크숍 개최 (오스틴)
- ⑪ 시민생활정보를 전담하는 라디오채널 개통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시)
- ⑫ 경전철 공사에 따른 지역상인의 피해 저감을 위한 포럼 개최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 ⑬ 도시마케팅을 위해 신년전야 대중교통 무료 운행 (런던)

도시 관리

세계도시동향

셋째, ‘필요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분야는, 조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화·자동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춰 모든 조달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조달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기술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넷째, ‘성과에 대한 책임’ 분야의 주요 내용은, 구매 기관과 감독기관 모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다. 다섯째, ‘매각인의 보증책임 확보’ 분야는 매각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감독하는 관련기관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훈련 제공, 매각인의 성실성·재정 능력·계약 성과 등에 관한 문제점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섯째, ‘헌장 개정’ 분야는 매각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조달과정을 개선하여 조달과정의 유연성을 증가할 수 있도록 헌장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곱째, ‘법률 개혁’ 분야는 州정부와 연방정부의 계약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각 기관에 계약 자율권 부여, 자격 있는 매각인 명단을 미리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행정 개선, 소규모 구매의 상한선 증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home.nyc.gov/portal/index.jsp?pageID=nyc_home)

1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마을’ 건설 (영국: 스완지市)

영국 스완지(Swansea)市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마을 (Innovation Village)’ 건설을 추진중이다. 市는 선창가 지역 중심부에 건설될 이 마을을 주민들이 걸어서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활기찬 지역 사회로 조성할 계획이다.

市는, ‘혁신 마을’ 건설의 목적은 고립된 고소득집단사회, 또는 낮에는 분주하지만 밤이면 공동화 상태가 되는 대도시 교외의 오피스 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122년의 역사를 가진 선창가 부두 지역에 상업, 거주, 소매, 여가 등의 용도가 혼합된 마을을 건축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데 있다.

(www.wda.co.uk)

도시 환경/도시 교통

세계도시동향

② 「자동차 공회전 억제 홍보의 날」 시행 (오타와)

캐나다 오타와市는 겨울철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자동차 공회전 습관을 억제하고, 공회전 제한 조례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11월 12일을 「자동차 공회전 억제 홍보의 날」로 지정·시행했다. 이날 市공무원, 기후변화대응재단 및 에너지국 대표, 녹색환경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모여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엔진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에너지 낭비 등에 관한 환경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했다. 특히, 市는 공회전 제한 조례에 의한 타율적 규제를 지양하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5분 공회전 자제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권고했다.

(www.city.ottawa.on.ca/cgi-bin/press)

③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The SaferRoads Project' 추진 (뉴질랜드: 웰링턴市)

뉴질랜드 웰링턴市는 교통사고 수를 2010년까지 1/3로 줄이기 위해 'The SaferRoads Project'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市를 20개 구역(15개 외곽 구역과 5개 간선도로)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 거주자들로부터 도로안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교통사고 저감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市는, 이를 통해 각각의 구역별 특성에 맞게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市는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컬러도로 이용 촉진, 간선도로와 주거도로의 명확한 구분, 속도제한 둔턱 활용, 제한속도 축소, 주정차 금지도로 지정, 도로조명도 향상 등이다. 市는 무엇보다도 속도 관리와 교통흐름 개선, 위험의 최소화 등이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www.wcc.govt.nz/news/press/2003/nr1062467579.html)

(www.wcc.govt.nz/news/projects/saferroads/)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 범퍼에 음주운전 경고용 스티커 부착 (플로리다주: 에스캠비아 카운티)

미국 플로리다주 에스캠비아(Escambia) 카운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경고용 범퍼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스티커에는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의 운전 태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한 운전 행위를 목격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추진기관인 'I Saw You Safety and Scholarship Foundation'은 음주운전자의 운전 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I SAW YOU'라고 적힌 이 스티커는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줄일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실제로 영업용 트럭 관련 교통사고를 50% 가량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스티커는 음주운전 적발 후 6개월~1년간 부착해야 한다. (www.pensacolanewsjournal.com/news/092203/Local/ST001.shtml#)

5] 지하철 이용자에게 핸드폰 및 이메일로 실시간 교통정보 무료 제공 (런던)

영국 런던지하철은 지난 10월부터 승객들에게 모바일폰이나 이메일을 이용해 교통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TravelAlerts」라는 이 서비스는 지하철이나 도크랜드 경전철의 운행상황은 물론, 운행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승객에게 상황을 알려줘, 승객들이 통행시간을 변경하거나 대안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런던지하철은 손쉽게 대안 경로를 찾아주는 'Journey Planner'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이다. 앞으로 'Transport for London'은 서비스를 확대하여 버스, 트램, 지하철을 총망라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하철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www.tfl.gov.uk/travelalerts)에서 출발역과 도착역, 정보를 받을 시간을 입력한 후, 정보 수신 방법으로 핸드폰 SMS나 이메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Metro, 2003. 10. 6)

6]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공사 관련 의견 수렴 프로그램 시행 (테네시주: 내슈빌시)

미국 테네시주 교통부는 최근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Record-A-Comment」라는 이 프로그램은 도로 주행 중에 운전자가 경험하는 도로공사와 관련한 불편사항 및 제안을 수렴하는 것으로, 관계당국은 도로공사장 주변의 교통여건 등을 모니터링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교통부는 도로공사 구간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全州역 80여 곳에 설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정보 향상 계획 'SmartWay'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www.tdot.state.tn.us/information-office/2003pr/09-26-2003\(program\).htm](http://www.tdot.state.tn.us/information-office/2003pr/09-26-2003(program).htm))

7] 사고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견인차량업체에 보너스 지급 추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미국 플로리다주는 사고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료도로(Turnpike)상에서 운영되는 견인차량업체를 대상으로 보너스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견인차량업체가 사고 발생 후 90분 이내에 사고차량을 처리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고차량 처리가 많이 지연될 경우에는 견인차량업체가 분당 10달러의 벌금을 당국에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으로 인한 도로 통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주는 견인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사고차량 처리시간 측정을 위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유료도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다른 도로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www.miami.com/mld/miamiherald/news/state/7056122.htm)

8 대도시 여성 36% “아이가 일에 방해됨” (스웨덴 대도시)

최근 스웨덴 ‘메트로’에서 TNS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중 1/3이 아이가 자신의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이 29%, 여성은 36%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가족부 장관은 남녀간의 이러한 견해 차이는 남녀평등이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성은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자녀를 걸림돌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자녀와 일에 대한 견해가 큰 차이를 보였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약 37%는 자녀가 자신의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고 대답한 반면, 교육 수준이 이보다 낮은 사람들 중에서는 단 10%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연령대에 따른 결과로는, 젊은층이 노년층보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9세 연령층의 43%는 아이가 자신의 커리어에 짐이 된다고 대답한 반면, 50~64세 연령층에서는 27%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특이한 점은, 현재 자녀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63%나 된다는 것이다.

소득별로 볼 때, 가계 연소득이 15만 크루나(한화 약 2,100만원) 이하인 가정 중 40%는 양육과 자신의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대답했으며, 40만 크루나(한화 약 5,6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는 3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내년 6월쯤 해결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Metro, 2003. 10. 27)

사회복지·문화/행·재정

세계도시동향

9 공공도서관을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런던)

현재 영국 런던시는 공공도서관을 수동적인 서적 보관소에서 모든 연령층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키는 중이다. 시는 우선 공공도서관이 성인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관들을 도서관이 있는 건물에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내에 방과 후 숙제 동아리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런던 타워 햄릿 자치구 의회는 최근 ‘아이디어 상점’이라는 새로운 도서관을 선보였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오래된 도서관을 재단장한 것이지만, 밝은 색채와 현대식 가구를 통해 레코드 가게나 인터넷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갖도록 했다. 성인교육기관 등에서 직원들을 스카우트해 1주일에 7일, 7시간 동안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휴게실에서 공부나 독서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서핑을 할 수도 있고, 카페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www.cilip.org.uk)

10 市の 경제발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용업 창업 워크숍’ 개최 (오스틴)

미국 오스틴시 경제지원실은 성장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市の 경제발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용업 창업 워크숍’을 최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미용업 경향, 업계 구조, 용자, 부동산 문제, 고용, 마케팅 등 많은 정보를 제공했는데, 미용실 운영자, 미용산업 컨설턴트, 세무법인 대표, 미용업협회 대표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참가비는 식대와 교재가격을 포함해 50달러, 미용학교 재학생은 35달러였다.

시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수준인데, 특히 온천, 헬스, 미용 관련 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라고 한다. 이번 워크숍은 미용 관련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ww.ci.austin.tx.us/news/2003/business_workshop.htm)

④ 시민생활정보를 전담하는 라디오채널 개통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시)

미국 플로리다주의 포트로더데일(Fort Lauderdale)시는 시민 생활안내 방송을 전담으로 하는 라디오채널을 최근 개통했다. AM 채널 1610으로 개통된 이 라디오 안내 방송(Public Information Radio System)은 지역 주민 및 방문객에게 공공 서비스 안내 및 교통 통제 상황, 날씨, 주차정보, 축제 및 이벤트 행사 안내 등의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라디오 방송은 24시간 운영될 예정으로,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중요한 안전 및 안보 문제 등도 다루게 된다. 관계당국은 현재 주요 도로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 라디오 방송을 홍보하고 있다.

(info.ci.ftlaud.fl.us/press_releases/2003/102703chaz_hars.htm)

④ 경전철 공사에 따른 지역상인의 피해 저감을 위한 포럼 개최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시 등을 통과하게 되는 경전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중 인접지역 소규모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전철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Valley Metro Rail'은 노선 통과 구간 인접지역의 소규모 상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경전철은 내년 봄에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상인들은 약 3년간 경전철 공사로 인해 소음, 먼지, 접근로 통제 등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국은 이번 포럼에서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발생 가능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www.azcentral.com/arizonarepublic/local/articles/1027phxforum27.html#)

도시마케팅을 위해 신년전야 대중교통 무료 운행 (런던)

영국 런던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런던을 방문할 수 있도록 2003년 12월 31일~2004년 1월 1일 밤새도록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송년의 밤 자정부터 시의 모든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주요 경전철은 24시간 동안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Visit London' 홈페이지(www.visitlondon.com)를 개편하여 송년의 밤 축제를 위해 one-stop-shop, 파티, 바, 레스토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예약, 온라인을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을 예약해 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Visit London' 홈페이지는 현재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등 4개국 언어로 런던의 호텔,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 및 쇼핑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11)